

신규 플랫폼·공간활용성 ↑... '더 뉴 싼타페' 신차급 탈바꿈



더 뉴 싼타페 디지털 언박싱
'독수리 눈' 콘셉트 외장 디자인
전자식 변속버튼 신규 적용
디젤 2.2모델 기준 3122만원

현대자동차 대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싼타페가 2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를 통해 '더 뉴 싼타페'로 돌아왔다.

현대차는 6월 30일 현대차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 론칭 토크쇼 '더 뉴 싼타페 디지털 언박싱'을 열고 더 뉴 싼타페를 공개했다.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싼타페는 2018년 출시된 이후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며 2년 연속 국내 베스트셀링 SUV로 자리 잡았다. 출시 후 만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19만대를 돌파한 만큼 이번 출시되는 부분변경 모델의 합류로 3세대 싼타페의 기록을 갈아치울지도 관건이다.

더 뉴 싼타페는 2018년 출시한 4세대 싼타페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한층 고급스럽고 강인한 디자인, 신규 플랫폼 및 파워트레인, 첨단 안전·편의사양 등을 적용해 신차급으로 탈바꿈했다. 현



'더 뉴 싼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 외장 디자인

대차는 더 뉴 싼타페에 디자인 고급감을 강화한 최상위 캘리그래피 트림을 운영한다.

현대차는 기존 싼타페의 세련된 디자인에 현대차 디자인 정체성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적용해 한층 고급스럽고 강인한 더 뉴 싼타페의 디자인을 완성했다.

외장 디자인은 날카로운 '독수리의 눈'을 콘셉트로 헤드램프 일체형 넓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수직의 T자형 주간주행등(DRL)을 독창적으로 대비시킨 강렬한 전면부가 특징이다. 측면부는 전면부터 후면부까지 이어지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이 세련미를 더하고, 후면부는 얇고 길어진 LED 리어 램프, 하단 반사판, 차량 하부를 보호하는 후면 스키드 플레이트의 삼중 가로줄이 안정감을 준다.

동급 최고 수준의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계기판)와 10.25인치 내비게이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새로 적용된 전자식 변속버튼(SBW)이 사용자의 직관적인 조작을 도와 최적화된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현대차는 더 뉴 싼타페에 차세대 플랫폼을 신규 적용하고 최적화된 설계로 공간활용성을 강화했다. 기존 싼타페 대비 전장이 15mm

부는 얇고 길어진 LED 리어 램프, 하단 반사판, 차량 하부를 보호하는 후면 스키드 플레이트의 삼중 가로줄이 안정감을 준다.



'더 뉴 싼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 내부 디자인

(4770mm → 4785mm), 2열 레그룸이 34mm (1026mm → 1060mm) 늘어나 실거주성이 개선됐으며 2열 후방 화물 용량은 기존 싼타페 대비 9L(625L → 634L) 증가해 골프백 4개가 들어가는 등 넉넉한 적재성을 갖췄다. 최고출력 202마력(PS), 최대토크 45.0kgf·m의 힘을 발휘하며 기존 싼타페 대비 4.4% 개선된 14.2km/L의 연료소비효율(연비)을 달성했다.

또 새로운 첨단 안전 및 편의사양도 대거 적용했다. 현대차는 더 뉴 싼타페에 차선을 인식해 주행 시 차로 중앙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차로 유지 보조(LFA), 주차 및 출차를 위한 저속 후진 중 충돌 위험 감지 시 경고 및 브레이크를

자동 제어하는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PCA), 차량 탑승 없이 스마트 키 버튼으로 차량을 움직여 주차 및 출차를 도와주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등 새로운 안전사양들을 추가했다.

더 뉴 싼타페는 1일부터 판매되며 가격은 디젤 2.2 모델 기준 3122~3986만원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뉴 싼타페는 한층 높아진 안전성과 편의성으로 가족을 위한 차를 고려하는 고객층을 만족시킬 차량"이라며 "앞으로 더 뉴 싼타페가 중형 SUV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청주공장에서 LG전자 관계자들이 U+지능형영상보안솔루션으로 CCTV 관제 화면을 확인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U+, ICT 기술로 24시간 공장 자동감시

LG전자 청주공장에 영상보안 솔루션

LG유플러스는 충북 청주에 위치한 LG전자 청주공장에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한 'U+지능형영상보안솔루션'을 구축하고, 오는 8월부터 1개소에서 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U+지능형영상보안솔루션은 공장에서 안전을 위해 진행하던 CCTV 육안 관제, 직접 순찰 등의 업무를 5G·AI 등 ICT 기술을 통해 24시간 자동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디지털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설비 이상 알림 ▲이상 온도 감지 ▲안전모 미착용 감지 ▲위험구역 접근 감지 ▲얼굴 인식 출입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배관 손상 등 설비 이상으로 수증기, 연기, 불꽃이 발생하면 관제 센터에 알려주고, 야외 소각탱크 등 고온 설비의 온도 변화도 열상 카메라로 감시해 이상 변화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배관 손상 시 발생하는 수증기는 영상분석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LG유플러스는 음원분석 기술을 도입해 이를 보완했다. 수증기 누출로 인한 의심 소음이 발생하면, 알람과 함께 주변에 배치된 카메라를 해당 배관 쪽으로 회전시켜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고도 즉시 감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상 분석으로 공장 내 모든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사전에 설정한 위험 구역으로 접근하거나 특정 설비를 조작하는 경우도 통제할 수 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작업자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5G 기반 이동형 고화질 카메라를 곳곳에 배치할 계획이다.

야외나 실내 임시작업장 같이 유선 CCTV의 설치가 어려운 곳에도 이동형 카메라를 배치해, 영상분석 기반으로 현장의 안전을 강화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두산그룹, '2020수소모빌리티+쇼' 참가

친환경·고효율 제품 기술역 한자리에 전시회 테마 맞춰 수소드론 등 공개

두산이 수소드론, 연료전지 등 그룹 내 친환경·고효율 제품 기술역 한자리에 선보인다.

두산그룹은 1일부터 3일까지 일산 컨텍스에서 열리는 '2020 수소모빌리티+쇼'에 참가한다. 두산그룹에서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는 회사는 두산모빌리티 이노베이션(DMI), ㈜두산 퓨얼셀과 파워BU, 두산퓨얼셀 등 3개 회사다.

두산은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등 이번 전시회 핵심 테마에 맞춰 수소드론과 가정·건물·발전용 연료전지 등 친환경 고효율 수소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DMI는 두 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드론용 수소연료전지팩과 이를 탑재한 수소드론(DS30)을 전시하고, 까다로운 테스트를 거친 수소용기의 안전성, 수소 공급 네트워크 등을 소개한다. 드론



1일부터 3일까지 일산 컨텍스에서 열리는 '2020 수소모빌리티+쇼'에 참가하는 두산의 부스 이미지

용 수소연료전지팩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기존 배터리 드론의 비행 시간 한계를 뛰어 넘은 제품이다.

㈜두산 퓨얼셀과 파워BU는 10kW 건물용, 1kW 주택용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를 전시한다.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는 고분자막 전해질로 이용하는 연료전지 방식이다. 또 두산퓨얼셀은 440kW 규모의 발전용 인

산형 연료전지(PAFC)를 제품 모형과 다채로운 영상, 그래픽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소개한다. 인산형 연료전지는 액체 인산을 전해질로 이용한다.

이와 함께 전기, 열, 수소를 동시에 생산하는 '트라이젠 시스템'과 연료전지를 활용한 스마트팜, 냉동창고 등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도 선보일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LGU+, 1인 가구 맞춤 IoT 패키지 출시

U+스마트홈 구글 패키지 구글 어시스턴트 통해 다양한 작업지원

LG유플러스는 1인 가구를 겨냥한 홈IoT 패키지 'U+스마트홈 구글 패키지'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U+스마트홈 구글패키지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장착된 스마트 디스플레이 '구글네스트 허브'와 무드등, 가전제품

의 전원을 제어하고 화재 위험 방지가 가능한 '멀티탭'을 하나로 묶었다. 구글네스트 허브에 장착된 구글어시스턴트는 음성명령을 인식해 일상 업무처리, '나의 하루' 설정하기, 엔터테인먼트 기기 등을 도와주는 구글서비스다.

U+스마트홈 구글패키지는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기

획상품이다. 이상품을 통해 고객들은 집 안팎에서 하루 종일 나만의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 콘텐츠 소비를 하며 음성만으로 다양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U+스마트홈 구글패키지는 월 7700원으로, 구글 서비스와 LG유플러스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구글패키지의 출시 기념 프로모션으로 가입 고객 전원에게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3개월 ▲구글 원 멤버십 3개월 무료 체험을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